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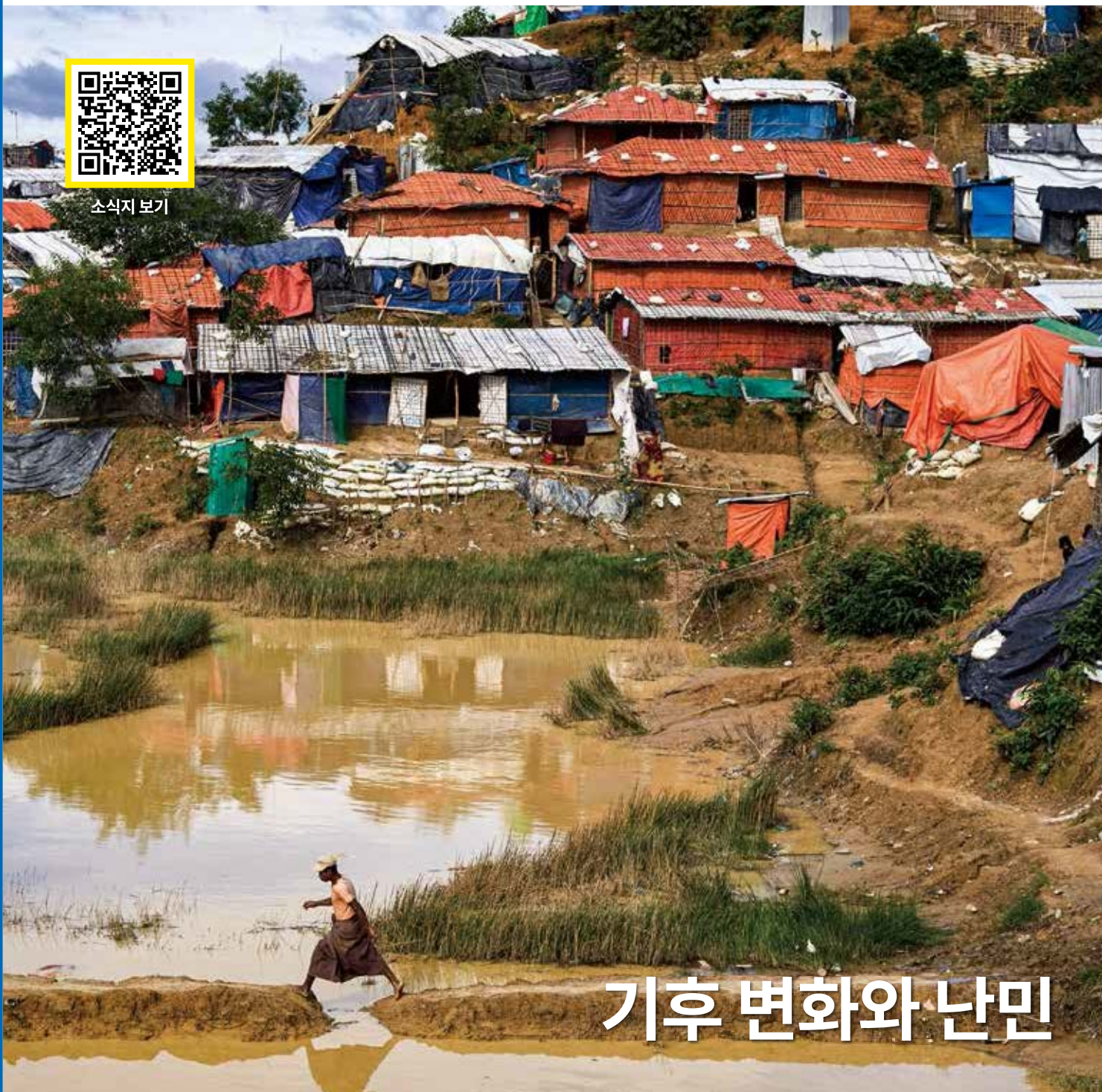
2021 Summer

통권 41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소식지 보기




기후 변화와 난민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상징합니다.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상징합니다.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6.20 세계 난민의 날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기후 변화와 난민 04

- 1 기후 변화가 난민에게 미치는 영향
- 2 지역별 사례와 난민 이야기
- 3 난민과 환경을 지키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고맙습니다
미얀마 상황 업데이트 + 후원 신청서 10




 With You가 만난 사람
하이라이트 손동운 후원자님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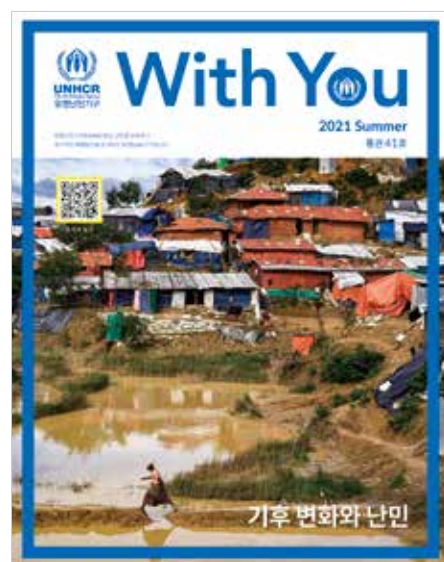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한국 소식 14

 고맙습니다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시리아 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바람 16

Cover Story



방글라데시의 발루칼리(Balukhali) 로힝야 난민촌에서 물길을 건너고 있는 한 남성
© UNHCR/David Azia

발행인 제임스 린치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1년 0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해시태그 캠페인
소식지 표지를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With You 2021년 여름호 소식지 표지를 찍어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에 해시태그 #유엔난민기구 #난민과함께 와 같이 올려주세요. 포스팅 인증사진을 문자(1666-5147)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우성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의 책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다면'을 보내드립니다.

기간 2021년 7월 30일(금)까지

  **6.20 세계 난민의 날**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난민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안전하며, 활기찬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유받고, 배우고, 빛납니다**

모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함께 치유됩니다. 모두가 함께 배울 때, 우리는 더 강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모두가 함께 팀으로 경기할 때 빛납니다.

매년 6월 20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1951년 난민 협약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2001년부터 이날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후원과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진행된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은 우측 QR코드를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난민

기후 변화의 주요인으로 일컬어지는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은 그 어느 때보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기준(1850년-1900년)보다 섭씨 1.2도 내외로 더 높게 관측되었고, 지난 10년(2011-2020년)은 가장 더운 기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카야(Kaya) 근처의 건조 지대를 걷고 있는 한 남성 © UNHCR/Sylvain Cherkaoui



가뭄으로 말라 죽은 소의 잔해. 가축은 소말리아 실항민의 주된 생계 수단이지만, 가뭄으로 2016-2017년 76만 명이상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 UNHCR/Mustafa Saeed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계절 강우 패턴이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폭염, 가뭄, 폭우, 열대성 폭풍과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더 높은 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상 현상으로 인해 매년 평균 2,150만 건의 신규 실항(이동 횟수 기준)이 발생했습니다.



물에 잠긴 길을 지나고 있는 실항민 아이들. 2020년 니제르를 덮친 폭우와 홍수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22만 명이상이 실항민이 되었습니다. © UNHCR/Boubacar Younoussa Sidde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방글라데시 쿠티디아(Kutubdia) 섬에서 대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는 두 소녀 © UNHCR/Saiful Huq Omi



2019년 사이클론 이다이(Idai)가 휩쓸고 지나간 모잠비크의 항공뷰 © UNHCR/Alissa Everett

기후 변화가 난민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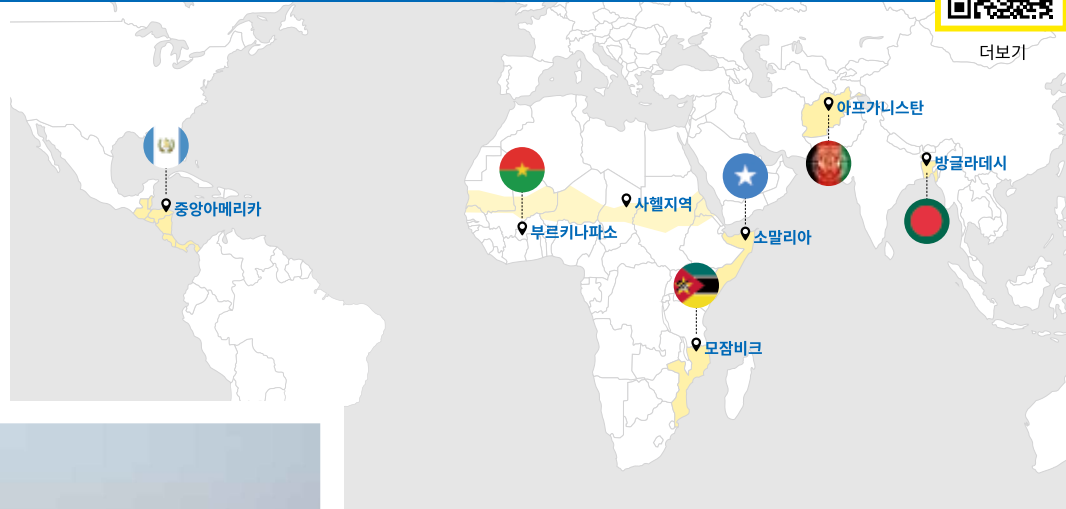
전 세계 인구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미 분쟁, 빈곤 및 실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그곳에 거주하는 취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난민과 국내 실항민, 무국적자 중 많은 수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장 파괴적인 결과 중 하나는 실항이며, 이미 분쟁, 폭력, 박해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피난 중인 사람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또 다른 실항의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는 식량 불안, 빈곤, 지역 사회가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천연자원을 둘러싼 갈등 등 다른 위협 요소들과 결합해 난민의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토지와 물이 부족해지면 작물 수확량이 줄고, 식량 생산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많은 난민은 식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식량 불안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 폭력으로 이어져 새로운 실항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 이다이(Idai)로 무너진 집 앞의 한 소녀 © UNHCR/Alissa Everett

* 출처: 세계기상기구(WMO): <https://public.wmo.int/en/our-mandate/climate/wmo-statement-state-of-global-climate>

지역별 사례와 난민 이야기



사헬 지역



부르키나파소 카야(Kaya) 근처의 건조 지대를 걷고 있는 한 남성 © UNHCR/Sylvain Cherkoui

부르키나파소 실항민 마무나 © UNHCR/Anne Mimault

유엔이 전 세계 평균보다 기온이 1.5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사헬(Sahel) 지역 국가들은 오랜 가뭄, 무장 단체로 인한 불안정과 실항을 경험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실항민으로 지내고 있으며, 이 중 100만 명 이상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최악의 폭력과 실항은 가장 가난하고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 단체는 줄어드는 물과 토지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을 조장했으며, 이는 폭력과 실항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 고향에서 농작물을 키우던 마무나(Mamouna)는 무장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자 가족과 함께 주변 마을로 두 차례 피난을 떠나야 했고, 현재 카야(Kaya) 지역에서 안전을 찾았지만, 작년 이곳을 덮친 폭우로 텐트가 휩쓸려간 후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임시 거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5년 전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 부르키나파소 실항민 마무나(Mamouna) -

소말리아

기후 변화에 취약한 소말리아에서는 가뭄과 홍수가 점점 더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말리아는 무장 단체 알샤바브(Al-Shabab)와 수십 년간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분쟁과 기후 재난으로 소말리아의 국내 실항민의 수는 현재 2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말리아 난민 샬 하산(Shalle Hassan)은 집 근처의 강둑을 따라 담배, 옥수수, 토마토 등을 재배하곤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몇 년 전부터 강이 마르고 무장 단체 알샤바브가 농부들이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 종류를 강제로 정하고 이미 생계난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갈취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샬 하산도 담배 재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미화 1,50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강요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알샤바브에 돈을 내거나 군사 훈련을 위해 자녀를 넘겨야 했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았고 강은 메말랐어요. 그 누구도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알샤바브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살던 곳을 떠났어요.” - 소말리아 난민 샬 하산(Shalle Hassan) -



소말리아 난민 샬 하산 © UNHCR/Eduardo Soteras Jalil

오랜 가뭄으로 소말리아에서 말라 죽은 가족들의 잔해 © UNHCR/Mustafa Saeed

방글라데시

기후 변화로 더 강력한 사이클론과 홍수가 더 빈번하게 87만 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몬순 동안 내린 폭우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로힝야 난민촌에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키고, 난민들은 다시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폭풍이 난민촌을 휩쓸고 갔던 그때를 기억해요. 비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함께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 로힝야 난민 앤워(Anwar) -



폭우와 홍수로 물에 잠긴 로힝야 난민촌 © UNHCR/David Azia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위치한 ‘드라이 코리도(Dry Corridor)’라 불리는 지역에서 반복되는 가뭄, 폭우, 홍수는 이 지역 농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농민 중 일부는 도시 빈민가로 이주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도 갱단의 폭력과 착취 등 위협에 노출됩니다. 2020년 11월 허리케인 에타(Eta)와 로타(Lota)가 이 일대를 휩쓸었을 때, 8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오랜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재난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34개 주가 지난 30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2020년 기준, 260만 명이 실항민으로, 270만 명은 주변국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인구 증가는 식량과 물 부족을 심화시켰고, 인구의 절반인 최대 1,69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최소 550만 명은 긴급 수준의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3년 전 눈과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실항민 굴람(Ghulam) -



아프가니스탄의 가뭄으로 갈라진 땅 © UNHCR/Vivian Tan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 사이클론 케네스의 피해를 입은 모잠비크 실항민 사무엘(Samuel) -

모잠비크

최근 몇 년간 모잠비크는 분쟁과 재해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2020년 말 약 67만 명이 강제로 피난을 해야 했고, 남반구에서 최악의 열대성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된 2019년 이다이(Idai)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연이어 덮친 사이클론 케네스(Kenneth), 샬레인(Chalane), 엘로이즈(Eloise)로 2020년 말 기준 약 1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무너진 집 앞에서 모잠비크 실항민 사무엘 © UNHCR/Tim McKulka

난민과 환경을 지키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극심한 환경 변화가 난민과 국내 실항민에게 주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해 집단적 조치를 긴급히 취하고 재난과 기후 변화로 실항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유엔난민기구의 기후 행동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기후 행동을 위한 특별 고문을 임명했습니다.



더보기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실항을 막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재난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최고대표 -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기후 행동과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후 재난으로 인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약 2배에 달하는 2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늦출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결과는 악화될 것입니다. 분쟁, 폭력, 박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해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있는 전 세계 난민을 계속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세요.

하나. 법과 정책



국제 사회에 법률 자문, 지침 및 지원을 제공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난민, 국내 실항민 및 기타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유엔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지침은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기후 변화나 재난의 악영향이 갈등 및 폭력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난민 지위에 대한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1969 아프리카통일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협약, 1984 카타헤나 선언(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과 같은 지역 난민 보호 체계는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건’과 같은 좀 더 광범위한 난민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 혹은 박해와 연관된 재난 혹은 기후 관련 요소로 실항한 경우, 1951년 난민 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 난민이라는 것 자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1951년 난민 협약이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앤드류 하퍼(Andrew Harper) 기후 행동 특별 고문-

둘. 현장 활동



안전한 난민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하/하천 정리 및 확장, 배수로 작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 © UNHCR/Roger Arnold



수단에서 산림복화 사업의 일환으로 양묘장에서 묘목을 돌보고 있는 여성 © UNHCR/Vanessa Zola



카메룬에서 산림복화 사업의 일환으로 묘목을 심고 있는 여성 © UNHCR/Xavier Bourgois

난민촌을 비롯한 전 세계 난민 보호 현장에서 환경 파괴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난민과 지역 사회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고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1. 산림 복구

산림 파괴는 산사태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가속합니다. 유엔난민기구

는 산림 벌채로 사막화 현상이 심각했던 수단 백나일강 일대에서 2017-2020년 산림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카시아 나무를 백만 그루 이상 심었고,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난민의 생계와 자립을 도왔습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서도 생장 속도가 빠른 나무를 심어 산비탈을 안정시키고 산사태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셋. 환경 발자국



Before (2017) 산림복화 사업 전

로힝야 난민촌의 2017년, 2019년 모습 비교 © UNHCR/Steven O'Brien



After (2019) 산림복화 사업 후

© UNHCR/Steven O'Brien



친환경 재료로 만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 UNHCR/Xavier Bourgois



새로운 LPG 스토브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로힝야 난민 © UNHCR/Roger Arnold

2. 친환경 연료 및 에너지 공급

나무 장작 대신 액화석유가스(LPG)와 같은 대체 연료와 친환경 스토브를 난민에게 제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탄자니아 난민촌에 2,600개 이상의 친환경 스토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난민촌 내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깨끗하고 저렴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에티오피아 난민촌 © UNHCR/Giulia Naboni



태양광 램프로 해가 진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로힝야 난민촌의 아이들 © UNHCR/Andrew McConnell



© UNHCR/Xavier Bourgois

130개국 이상에서 17,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으로서, 유엔난민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디젤 발전기 대신 친환경 발전기를 사용하고 물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 현장 사무소 및 직원 숙소에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배출량 상쇄를 통해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한 이래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황 업데이트

“우리는 미얀마 군부와 일부 국경 지역의 무장 단체 간 발생한 분쟁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과 박해를 피해 미얀마인이 국내외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유엔난민기구 보호 부문 대표 -

미얀마 시파우(Hsipaw)의 실향민들이 유엔난민기구에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 © UNHCR/Meikwe Myanmar/Naw Alice

위기의 미얀마, 미얀마는 지금

2021년 2월 1일 군부 장악 이후, 폭력과 분쟁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분쟁은 죽음, 주요 사회 기반 서비스의 중단, 그리고 수천 명의 강제 실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건 서비스, 생계 수단이 사라지고 인터넷 통신망까지 차단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피해 보호를 구하는 난민들

수천 명이 안전을 찾아 이웃 국가로 피난했습니다. 인도 국경 지역 2개 주에는 3월 이후 약 4,000-6,000명의 미얀마 난민이 피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국 매홍손(Mae Hong Son) 지역에는 7,000명에 가까운 난민이 피난했으며, 태국 정부는 태국-미얀마 국경에 밀려드는 난민을 위한 안전 지역을 설치했습니다.

2월 1일 이후 약 20만 명(6월 15일 기준)이 미얀마 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했습니다. 초기에 소규모, 산발적으로 관측된 강제 실향의 수는 더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실향은 대부분 미얀마 남동부와 북부 산(Shan)과 카친(Kachin)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미 37만 명에 이르는 실향민이 미얀마에서 인도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대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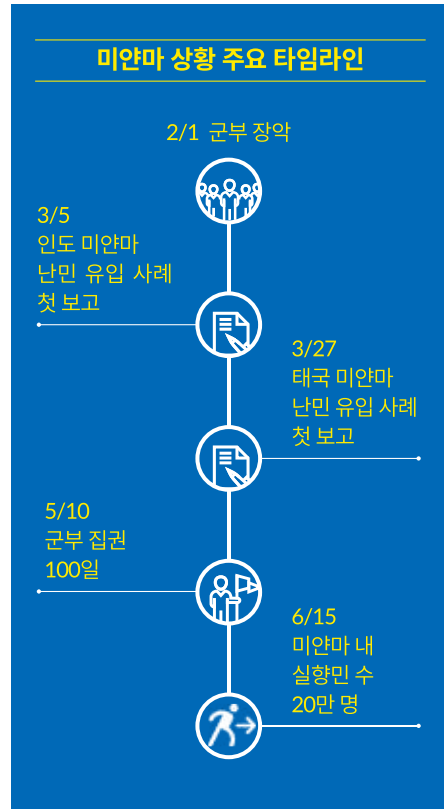
유엔난민기구는 미얀마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통, 비누, 담요, 태양광 램프 등 구호 물품을 배포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즉각적인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미얀마와 주변국에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추가 물품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및 주변국 활동

- 인도 뉴델리(New Delhi)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대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인도 전역의 난민과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게 의료 지원과 인도적 도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태국 5,000 가구에 제공할 수 있는 긴급 물품과 마스크 1만 장을 사전 배치하고, 태국 정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인도주의적 활동을 조정 및 주도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이번 사태 이전에 발생한 국내 실향민들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지속하면서, 미얀마 전역에서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하고 파트너들과 보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난민 보호

미얀마와 주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3억 3,500만 달러(한화 약 3,712억 원)가 필요하지만, 6월 1일 기준, 23%만이 조성되었습니다.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세요.



미얀마 캠페인

미얀마와 주변국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세요.

미얀마 시파우(Hsipaw)의 실향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주요 구호 물품을 받고 있는 모습 © UNHCR/Meikwe Myanmar/Naw Alice



더보기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현재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기금선택** 미얀마 캠페인
- 후원금액**
- 100만 원이면, 난민촌에 사는 8가족을 위해 거처를 짓고 이들을 외부 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1회만)
 - 50만 원이면, 난민 여성 40명에게 위생 키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회만)
 - 20만 원이면, 한 난민 가족에게 긴급 거처와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식량 물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회만)
 - 10만 원이면, 난민 가족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돕는 휴대용 태양광 손전등 4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1회만)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기타(정기 일시)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시 후원금은 미얀마와 그 주변국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은 여름호 소식지 1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 후원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0일 내에 출금되며,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재출금이 시도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 (서명 또는 인)

보라색 바람을 타고 온 나눔의 나비효과

그룹 하이라이트 손동운 후원자 인터뷰

13년 차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Highlight)의 멤버이자,
벌써 5년째 꾸준히 매월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해오고 계신
손동운 후원자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1. 오랜만에 무대에서 팬들과 다시 만나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활동인데 코로나로 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쉬운 마음이 커요. 그래도 SNS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계속 응원해주시는 것을 잘 알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팬분들이 즐거워하실만한 활동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하이라이트의 멤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실제 인간 손동운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평범한 30대 청년인 것 같아요. 저의 평범한 행동, 말투 등을 좋게, 예쁘게 봐주셔서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제 언행을 좀 더 조심하고 늘 무게를 갖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3.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이 후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후원에 참여하시게 됐던 계기가 궁금합니다.

삼성동 테헤란로에서 자전거 끌고 가다가 유엔난민기구에서 거리 모금 활동하시는 걸 보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늘 생각은 있었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시작을 못 하는 분들요. 후원이나 기부라고 하면 뭔가 '이 정도로 될까, 이렇게 작은 걸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항상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 정기 후원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무엇보다 그 전부터 팬분들도 저희 하이라이트 이름이나 팬클럽 차원에서 기부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저도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4. 2019년에 직접 쓰신 SNS 댓글을 계기로 팬클럽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시리아 난민을 돕는 데 써 달라고 저희 쪽에 후원해 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이 SNS 글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 글을 계기로 팬클럽에서 모금해서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해주시는 건 사실 몰랐어요. 아마 2019년이면 군대 있을 때라서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도 더 무게감을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게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가수나 팬이 함께하는 일들이에요.

Q5. 유엔난민기구에 후원을 시작한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련 기사나 글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참여하고 나니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게 되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함으로써, 영향을 끼친다

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저도 공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Q6. 벌써 5년 동안이나 후원해주고 계신데, 후원자님에게 후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도움받았고, 이제는 도움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저 역시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 소년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결국 '나눔'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Q7.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서 노래로 대중과 만나는 삶을 사시지 않을까 싶는데, 본인의 재능으로 기여하고 싶은 바가 있다면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사에도 최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8. 만드신 곡 가사나 제목을 보면 문학적인 감수성이 느껴졌는데요, 가사를 쓸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영화, 드라마 대사에서 아이디어가 생겨 파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타샤'라는 곡은 백석 시인의 작품을 토대로 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연극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고요, 커피 마시다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영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서프(Surf)'는 몇 년 전 두준이 형이랑 하와이에서 서핑했던 기억에서 탄생한 곡인데, 좋았던 그 추억을 함께 어려움을 헤쳐가자는 내용으로 더 발전시켰죠.

Q9. 그렇게 만든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쓴 단체 곡이기도 한 '서프(Surf)'요. 저와 팬들이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럼



© Around Us Entertainment

“뭔가 말로만 들으면 후원이란 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서로 믿고 가기 때문에 다양한 파도, 거친 파도를 헤쳐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Q10.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같이 듣고 싶은 본인의 곡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인터미션(Intermission)'이라는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슬픔을 제가 감히 알 수 없겠지만 이 곡은 지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희망적이고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상황에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 생각했던 것들이라서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는 의미로 같이 듣고 싶어요.

Q11. 유엔난민기구 후원자 여러분과는 어떤 곡을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불어온다'를 같이 듣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면 슬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노래하는 곡이거든요. '나비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개개인이 후원한 금액은 작을지언정 그것들이



© Around Us Entertainment

모이고 모여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12. 8,24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강제 실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제가 감히 상상도 못 할 만큼 힘든 일을 겪고 계신데, 그래도 멀리서 작게나마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응원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13. 아직 후원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에 지금 후원하고 계시는 후원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요?

저도 우연한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뭔가 말로만 들으면 후원이란 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큰 금액은 못 하고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금액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지만, 처음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할 때 몇십 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또는 그때

의 제 경우라면 군대에 간 다음 경제력이 부족해졌을 때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오래 후원하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저 스스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부담 없이 후원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민 끝에 후원을 시작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꼭 같이 후원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www.unhcr.or.kr/1daygift



하루 나눔 캠페인 더보기

*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주시는 손동운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님의 선한 마음이 더 큰 나눔의 바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유엔난민기구 소식

글로벌

난민 올림픽팀 출전 선수 발표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난민팀(Refugee Olympic Team) 선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난민팀에 포함된 선수 29명은 태권도 포함, 12개 종목에 출전하여 8,0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을 포함한 강제 실항민의 어려움을 알리고 전 세계에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난민팀의 올림픽 출전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이며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올림픽 위원회와 25년 이상 파트너십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최고대표-프란치스코 교황, 글로벌 비전 공유



“프란치스코 교황은 난민, 강제 실항민, 이주민 등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지난 4월 바티칸 시국을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과 전 세계 실항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고대표에게 전달한 제54회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 수준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8,000만 명이 넘는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올랐고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난민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 고등교육 캠페인 런칭, 국제사회 관심·참여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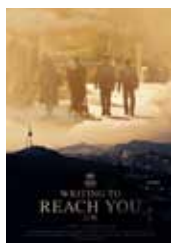
1951년 난민 협약 70주년을 맞아, 난민 고등교육 캠페인(더 높은 곳을 향해, Aiming Higher)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3%만이 대학 혹은 그에 상응하는 고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는 2030년까지 그 비율을 15%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미화 2,300만 달러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2030년까지 난민 학생 1,800 명의 대학 및 기술 교육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세계 난민의 날, 난민 다큐멘터리 온라인 상영

2021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제작한 난민 다큐멘터리 영화 다섯 편에 대한 온라인 상영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유튜브

한국



채널과 줌(Zoom)을 통해 진행된 금번 상영회는 ‘경계에서(2017)’, ‘호다(2018)’, ‘안식처(2019)’, ‘실항민(2020)’을 포함하여, 2021년에 신규 제작된 작품으로 국내 거주 난민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기록(Writing to Reach You)’을 6월 19일 오후 2시에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상영 이후, 닐 조지 감독 및 출연 난민들이 관객들과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난민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린치 대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특강



지난 4월 7일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초청으로 ‘글로벌 난민 이슈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임스 린치 대표는 전 세계 실항민들의 수, 지난 10년 동안의 실항 사태 추이, 유엔난민기구 보호대상자의 정의, 보완적 보호 체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제 실항 사태, 대한민국 내 주요 난민 이슈 등을 다뤘습니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 강연에는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참여



제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퀘어원, CGV인천연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와 정우성 친선대사가 축사 영상을 전달하여,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이새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공보지원 담당관은 ‘어바웃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의 디아스포라 영화제 홍보 인터뷰에 참여하여, 전 세계 및 대한민국의 난민 현황, 난민들을 비롯한 보호대상자의 정의, 코로나19로 인한 난민들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LiveTogether 캠페인 참여

외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인종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기 위해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인 #LiveTogether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Live



Together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들고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선정되어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은홍섬유, 난민 영유아 위해 친환경 면 기저귀 후원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유아용 친환경 섬유 용품 제조업체인 은홍섬유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난민 영유아의 위생 개선을 위해 재할용이 가능한 친환경 면 기저귀 62,700개를 지난 4월 파키스탄 난민촌에 기부하였습니다. 파키스탄 난민촌에는 내전과 박해를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난 온 약 144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0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 난민 아동의 숫자는 약 15만 명으로, 이들은 보건위생 시스템이 열악한 난민촌에서 생필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은홍섬유의 친환경 면 기저귀 후원은 파키스탄 영유아 난민 아동의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난민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OICA 국제기구-NGO 협력활성화 컨퍼런스(KOPINC) 참여

2021년 4월 29일 KOICA와 KCOC 공동 주관으로 ‘KOICA 국제기구-NGO 협력활성화 컨퍼런스(KOPINC)’가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및 국제기구 8개 기관과 국내 NGO 17개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한 가운데 김지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외협력관은 2023년 유엔난민기구의 코이카 사업 대상국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부룬디 콜롬비아를 소개하였고 국내 주요 파트너기관 간 소통과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산학협동재단 <유엔난민기구 파견 인턴십 지원에 대한 약정> 체결

2021년 4월 유엔난민기구와 산학협동재단은 유엔난민기구 파견 인턴십 지원에 대한 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이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으로 유엔난민기구 해외 사무소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에 이행된 시범 사업에 이어 2021년 5월부터 총 2명의 인턴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채용되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이 가져온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원 현황 업데이트: 2021년 4월~6월 기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예산 구성	검토 승인	본부 전달	전 세계 132개국 전달	난민 보호 및 지원	후원금 사용 영상
각 지역사무소에서 조사한 보호 대상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프로그램과 예산을 구성합니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에서는 이 예산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 전액을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로 전달합니다	후원금을 승인된 계획에 맞게 전 세계 132개국 520개 지역에 전달합니다	임시 거처, 보건 영양, 법적 지원 및 보호, 교육, 물과 위생 등을 지원합니다	

* 2021년 6월 발행된 유엔난민기구 본부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위 표의 숫자를 일부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 연례 보고서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에게 전하는 희망의 바람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분들이 전해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들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정말 가서 아이들을 보살펴 주고
싶은데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 않네요. 하루속히
내전이 끝나고 평화가 와서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배남일 후원자님 -

“저는 겪지 못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알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루빨리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 익명 후원자님 -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절대 여러분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내라는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전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상상하시며 힘든 시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 김민상 후원자님 -

“이 한 마디로 모든 걸 대신할 수 없겠지만,
부디 당신의 삶에 평화의 그늘이 드리울 날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으로,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일상에 반드시 행복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 건강히 잘 지내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 익명 후원자님 -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이 지구에 오신 누구보다 귀한 당신들을 멀리서
응원합니다.”
- 송숙 후원자님 -

“단지 태어난 곳이 그곳이라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조차 꿈의 삶이 되어버린 분들...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의 삶이라 차마
힘내라는 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전이 끝나길 바랄 뿐이네요.”
- 김윤섭 후원자님 -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십여 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일찍이 위로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뜹니다. 힘내시고 잘 견디시길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익명 후원자님 -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청소년 분들도 비록 힘든 환경일지라도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만나 뵈 수 있길 소망합니다.”
- 김혜인 후원자님 -